

deSilva 박사 , 히브리서, 8a 세션, 히브리서 9:1-10:18: 우리의 속죄이신 그리스도 (1부)

© 2024 David deSilva 및 Ted Hildebrandt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설교자는 7장과 8장에서 다룬 질문을 바탕으로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첫째, 만약 우리가 이것을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의 사역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둘째, 레위 제사장들의 중재가 아닌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자는 성막이나 성전의 공간적 배열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레위 제사장 제도와 그것을 규제하는 율법의 본질적인 결함을 파악합니다. 이것들은 대제사장을 넘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저자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속죄 의식의 마지막 효과적인 날을 거행하기 위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살펴봅니다.

그는 동물 희생의 피와 관련하여 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의 논증을 사용하는데, 이는 그렇게 효과적일 뿐이고, 예수의 피는 훨씬 더 강력해야 하며, 죄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한 의식적 세제와 같아야 합니다. 그는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해석적 틀을 레위기 16장의 속죄 의식의 날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발견되는 언약의 시작 권리로 바꿉니다. 모세가 시내 언약을 시작하기 위해 행한 권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늘의 성소로의 승천을 예레미야 31장에서 선포된 새 언약을 시작하는 의식적 행위로 이해하는 두 번째 틀이 됩니다.

9장 마지막 구절인 23~28절에서 저자는 속죄일 의식의 틀로 돌아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 입성하신 것을 지상의 대제사장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 지상의 지성소에 들어가 자비소에서 죄의 더러움을 제거한 일과 우주적으로 동일한 일로 여긴다.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후 하늘에 입성하신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죄의 더러움에 대한 기억을 효과적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한다. 10장 1~10절에서 저자는 레위 제도에서 희생 제사를 반복하는 주제로 돌아가서 같은 희생 제사를 매년 반복하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죄와 더러움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 그는 예수께서 자신을 한 번에 영원히 바치심으로써 행하실 효과적인 희생에 대한 성경적 보증으로 시편 40편 6~8절을 살펴봅니다. 저자는 10장 11~18절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에 대한 이 중심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임명됨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라는 초대를 다시 시편 110편 1절에서 살펴봅니다. 설교자는 여기서 예수께서 앉으신 것에서 그리스도의 제물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발견하는데, 레위 제사장들은 제사장적 봉사를 위해 끊임없이 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 옆에 앉았다는 사실은 설교자가 예수의 제사장적 사역이 결정적으로 성취되었고 결코 반복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인다. 그는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을 일종의 QED로 다시 낭송하면서 마치 내가 요점을 증명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의 양심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에서 죄가 결정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하는 듯하다.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자는 지상 성막의 배열을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가 무엇이고 첫 번째 언약에 대해 비난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힌다.

저자는 이미 7장 11절과 19절에서 이에 대해 암시했습니다. 토라의 종교적 규정과 그 제사장직은 완전함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배자들의 양심을 깨끗이 하여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저 지상의 장막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형,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자는 첫 번째 언약에 의해 정해진 예배의 규정과 세속적인 신사, 지상의 성전의 배치를 숙고함으로써 그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의 규정과 지상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막이 지어졌는데, 여기에는 등잔대, 상, 그리고 임재의 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으로 된 향단과 사방이 금으로 덮인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판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자비소를 가리는 영광의 케루빔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부인을 통해 저자는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와는 달리 성전의 장신구의 영적 의미나 의미에 대해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필로는 성막의 배치에 관해 글을 쓸 때, 성막에 있는 모든 가구의 우화적, 도덕적, 영적 의미를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관심사는 공간적 배치 자체와 이러한 배치가 영속시킨 하나님께로의 접근에 대한 제한입니다. 저자는 6,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준비가 이루어졌으므로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첫 번째 천막으로 들어가 의식적 의무를 수행하지만 대제사장만이 두 번째 천막으로 들어가고, 그는 일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자신과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지은 죄를 위해 바치는 피를 받지 않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극복하기보다는 영속시킨 중심 문제는 이 저자에게는 하나님께로의 접근에 있어서의 단계적 차이인 듯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멈춰야 했습니다. 제사장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멈춰야 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실제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는 일년에 한 번만 그런 입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등잔대를 지키고 성별된 빵인 진설빵을 교체하는 등 바깥쪽 방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또한 향단에 향을 바쳤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이 저자를 안쪽 방에 배치한 것은 이 점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장소, 즉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여겨지는 더 먼 방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속죄일에 일 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피를 지성소로 가져갔는데, 그 피가 먼저 자신의 죄를 덮었고, 그다음에는 사람들의 죄를 덮었으며, 그다음에는 모르게 또는 무지하게 지은 죄만 덮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설명된 이 의식은 레위 대제사장들의 활동과 이 구절 전반에 걸친 예수의 성취에 대한 저자의 성찰에 필수적인 배경이 됩니다. 평신도 이스라엘인,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은 세 단계의 거룩함, 세 단계의 순결 요구 사항 준수를 나타내며, 각 단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자체의 경외로운 현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특권과 위험이 추가되었습니다. 제사장직 자체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지만, 일반 예배자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개선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언약의 종교적 규정은 그 나라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도록 했고, 침해에 대한 처벌의 울타리와 지성소 주변에 금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거나, 더 정확히 말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의 더러움에 맞서 터져 나오는 것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마련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모든 백성과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신호이며, 따라서 첫 번째 언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라고 이해합니다.

그는 계시록의 저자인 선견자 요한에게서 동료 정신을 발견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될 새 예루살렘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등급적 접근 때문에 성전이 없고,

하나님께로 가는 데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을 읽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에서 요점을 잡습니다.

첫 번째 성막의 종교적 배열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경계와 장벽을 영구히 유지하며, 인용문은 현재를 위한 상징이지만 여전히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예배자의 양심에 관하여 온전케 할 수 없는 방의 선물과 희생이 바쳐지고 있으며, 음식과 음료와 다양한 세수에 관한 문제일 뿐이며, 육체에 국한된 규정이며, 사물을 바로잡을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아직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아직 보여지지 않았습니니다.

저자는 10장 19-20절에서 읽을 수 있듯이, 그리고 12장 26-28절에서 더 명확하게 읽을 수 있듯이, 길이 분명해지는 날을 고대합니다. 물질적 창조물이 흔들리고 제거되는 날,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성령께서 성막의 마련을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계시되지 않았지만, 그 첫 번째 천막은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그것을 현재를 위한 비유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천막은 은유적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이 괄호 안의 발언은 첫 번째 성막의 배치에 우주론적 차원을 삽입하는데, 이는 12장 26절에서 28절에서 다시 명확히 밝혀질 것입니다.

외막, 즉 성소는 눈에 보이는 창조물 자체가 두 번째 방으로 표현된 하늘의 영구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전히 숨기고 있는 현 시대의 상징입니다. 그 첫 번째 방, 즉 이 눈에 보이는 창조물이 흔들리고 제거되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남을 때 길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핵심 요점은 다시 한 번 레위인 희생 제사가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넓히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자가 쓴 대로, 이 천막에서 예배자를 양심에 있어서 온전케 할 수 없는 제사가 바쳐진다. 즉, 그들은 예배자의 양심을 파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서게 하는 신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게 할 수 없었다. 많은 제사가 예배자를 여전히 밖에 영원히 서 있게 했다는 사실은 저자가 전체 시스템의 무능함을 증명한다.

그래서 그는 희생만이 효력이 있다고 쓰고, 음식과 음료, 다양한 세수나 의식적 정화가 육체를 위한 규정이며, 갱신의 시간이나 사물을 바로잡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인용합니다. 저자는 첫 번째 언약의 규정을 단순히 육체의 규정, 토라의 식이 규정이나 신체의 정화적 세척과 같은 음식과 관련된 처방으로 비판하며, 이는 내면의 사람에게 성화의 힘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교정의 시간, 사물을 바로잡을 시간이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대제사장은 이미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제정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은 이미 그 종교적 지위를 잃었습니다. 시편 40편 6~8절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 10장에서 조금 후에 보여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은 속죄일 의식을 레위 대제사장들의 사역과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 즉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확립했습니다.

속죄일 의식은 이 장에서 저자가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 이스라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의 다양한 단계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속죄일 의식에서 첫 번째 주요 전례 운동은 대제사장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도살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성소에서 향로에 분향하고 그 황소의 피로 자비소를 뿌립니다.

두 번째 움직임으로 대제사장은 염소 두 마리를 골라 한 마리를 잡아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삼습니다.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 그 염소의 피를 자비소에 뿌려 백성의 죄를 속죄합니다. 대제사장은 번제단의 네 모서리에 황소와 염소의 피를 약간 바릅니다.

대제사장은 두 번째 염소를 바치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그 머리 위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염소를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염소는 누군가에 의해 사막으로 인도되어 사막의 악령인 아자젤을 위해 그곳에서 풀려납니다. 대제사장은 물에 몸을 담그고, 옷을 갈아입고, 두 가지 속죄제, 첫 번째 염소와 황소의 기름을 제단에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황소와 염소의 나머지 시체는 다른 사제들이 진영 밖으로 가져가 불태웁니다. 이 전례 의식에는 두 가지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죄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화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을 그들의 죄의 더러움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의식의 측면들. 그 첫 번째 요소는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사물 개념에서, 언약에 반하는 죄는 죄를 지은 사람만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예배자의 양심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성소의 자비소에 일종의 거울 효과가 있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대한 위대한 학자, 제이콥 밀그램은 도리안 그레이의 그림을 지성소의 자비소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속죄 의식은 두 가지 다른 장소, 즉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와 물론 처음에 죄를 지은 예배자의 양심에서 죄를 제거하는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성소와 종교적 규정을 가졌던 것처럼, 설교자는 두 번째 언약도 자체의 연관된 성소, 즉 천상의 성소와 자체의 희생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속죄일 의식의 지도와 같은 오래된 의식 지도는 원형으로 기능합니다. 개념적 원자재를 제공하지만, 이것들은 새로운 사제, 즉 중재자와 제물이 되는 예수에 의해 새롭고 불가능한 방식으로 결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문단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존재하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좋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하여 한 번만 성소에 들어가셨고 염소와 황소의 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발명하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뿌려진 재가 육체의 정결함을 위하여 더럽혀진 자를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영으로 흠 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저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즉 이 창조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천막인 더 뛰어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확인합니다. 여기서 하늘 성소를 더 크고 더 완전한 천막으로 묘사한 것은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사이의 문턱을 넘는 것과 관련된 완전성 언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뒷받침합니다. 하늘 성전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속적인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 완전합니다.

둘째, 저자가 이 창조물과 예수가 우리를 위한 선구자로서 들어간 영역을 구분한 것은 히브리서 9장 9절에 대한 해석을 뒷받침하는데, 이는 단순히 구약의 숭배를 대체하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이 창조물 자체가 신자와 하나님께로 가는 최종적인 완전한 접근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이 물질적인 가시적 영역에 속하지 않는 명상의 영속적인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창조된 하늘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지로 들어가는 길은 이제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신자들은 기도와 집단 예배로 그 공간을 따를 수 있지만, 더 많은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 영광으로 인도하실 때 직접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또한 뛰어난 의식적 요소가 포함됩니다.

그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통해 천국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언약의 정화 매체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포함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쌉니다. 따라서 저자가 곧 10장 29절에서 강조하듯이, 이 피가 가져온 혜택을 너무 적게 생각함으로써 이 피를 더럽히는 데 따르는 더 큰 위험도 있습니다.

예수의 희생의 단 한 번의 측면은 그가 얻는 구원의 질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고 반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 설교자에게 반복은 비효율성과 무능함의 표시입니다.

9장 13~14절에서 저자는 9장 12절에서 동물의 피와 예수 자신의 피의 대조에 근거한 또 다른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암소의 뿌린 재와 연결하여 욥 키푸르의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와 시체를 만져서 시체의 더러움으로 인해 생긴 불순물을 제거하는 물질을 준비하는 민수기 19장에 설명된 절차를 혼합합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통해 저자는 구약의 모든 의례는 외부의 더러움을 다루는 권한만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말했듯이 양심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뚫을 수 없는 육체에 대한 규정이었다는 주장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죄일의 희생은 외적인 정화의 수준으로 격하됩니다. 동물의 피의 물질적 본질이 외적인 사람의 성화에 충분하다면, 저자는 영원한 영을 통해 바쳐진 그리스도의 피가 내적인 사람의 정화에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 저자가 외적인 사람과 내적인 사람의 양심을 구분하는 데 인류학의 변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과 외면을 근본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보다 통합된 고대 이스라엘의 인간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인간의 외면과 내면을 대조적으로 나란히 배치하는 보다 헬레니즘적인 개념으로 옮겨갔습니다. 레위기 편찬자들은 피부의 정화와 심장의 정화 사이에 선을 그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일 의식이 사람을 정화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 의식에 대한 예언적 비판의 이점과 수세기 동안의 헬레니즘화의 이점을 가지고 역사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 16장 30절에서 속죄일 의식이 제공하는 정화의 정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단순한 외적인 의식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논쟁 전반에 걸쳐 저자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실함으로 인해 겪은 십자가 처형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실제로 피를 하늘로 가져가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영적인 현실이 어떤 질의 물질로 정화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자가 예수의 희생이 영원한 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우리가 이러한 종교적 용어로 그 죽음의 효과를 숙고할 때 예수의 죽음의 물질적 측면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는 피와 같은 대상화 언어를 사용하여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승천하신 것은 믿는 이들이 예수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안으로 받아들여졌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그들을 위해 살고 중재하시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의 컬트 언어는 거룩한 하나님과 불경건한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데 강력한 언어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일어났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한 예수의 승천이 예수의 추종자들을 대신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22절에서 저자는 언약의 언어로 돌아가 예수의 죽음을 속죄의 우주적 날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서 약속된 새 언약을 시작하는 의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독자들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알 수 있듯이 언약 시작 의식에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은 속죄를 이루고 언약을 시작하는 희생이라는 두 가지 의무를 지닙니다.

이로 인해 그는 첫 번째 언약에 대해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한 죽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기쁨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언약과 상속이라는 단어를 합치면 저자는 그리스어 단어 디아테케의 이중적 의미를 언약과 유언, 즉 유언으로 활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언약의 시작 희생과 유언자, 유언을 만드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두 가지 확언을 함께 유지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재산이 상속자에게 귀속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명된 자들에게 유효하게 됩니다.

16절에서 계속해서 말하듯이, 언약이나 유언이 있는 곳에서는 언약을 만드는 자나 유언을 만드는 자의 죽음을 앞당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상속자들에게 상속의 법을 효력 있게 하는 죽음으로 앞당겨집니다. 저자는 17절에서 다시 언약과 유언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데, 언약은 시체를 근거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언약을 확정하거나 구속력을 부여하는 근거로 시체를 도입하는 것은 특정한 언약을 만드는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9절에서 21절까지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맹세의 표징으로 자신의 삶에서 언약의 부분을 지키겠다는 표시로 동물 시체 가운데서 죽은 시체를 통해 실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저자는 마치 이 두 가지 의미의 틀을 엮고 엮어매는 것을 완성하듯이 유언법의 주제로 다시 돌아간다. 이 조항은, 즉 언약은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희생자를 죽이는 것을 속죄 의식뿐만 아니라 언약의 시작과도 연결한다. 그리고 유언법의 허황된 생각은 설교자가 이 요점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주장의 주요 요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히브리서 8장에서 저자가 낭송한 예레미야 인용문에서 언급된 이 언약의 개시를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22절은 출애굽기 24장 1-8절의 의식을 요약하고 수정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규정된 모든 계명이 모세에 의해 모든 백성에게 전달된 후에 모세는 황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히속과 함께 책 자체와 모든 백성에게 뿌려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정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천막과 모든 예배용 그릇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이 율법에 따라 피로 깨끗해지며 피 흘림 외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피를 뿌린 것은 백성과 하나님께 언약이 이제 양측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피는 평화 제물로 바쳐진 동물에서 나왔습니다. 희생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그들의 안녕을 확신시키기 위해 행해집니다.

설교자는 출애굽기 에피소드에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추가합니다. 물, 주홍색 실, 히솜은 출애굽기 24장의 언약 체결 의식의 일부가 아닙니다. 천막이나 모든 전례용 그릇에 물을 뿌리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9:13에서 저자는 토라에서 다른 장소의 의식을 다른 경우와 목적에 따라 규정하여 혼합하여 이러한 행위의 외적인 본질과 비교에 많은 다른 의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숭배 체계를 새로운 언약의 한 의식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또한 모세의 말씀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언약의 피를 보라.

하지만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저자는 모세가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이 후자의 구절은 공관복음서, 특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알려진 최후의 만찬 제정의 말씀과 훨씬 더 밀접하게 공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새 언약의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역사적 죽음은 이 언약의 시작 의식에 더욱 긴밀하게 얽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9:21에서 모세가 속죄일에 레위 대제사장이 한 것처럼 백성뿐만 아니라 성소도 황소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는 관찰은 저자에게 더 큰 대제사장이자 더 큰 언약 중재자의 사역에도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시작되는 더 나은 피로 하늘 성소를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에 대한 그의 주장의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는 유사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원형인 구약 언약 제정 의식에 이러한 의식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반형으로 동일한 요소를 성취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자 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격언은 레위 제사장 제도의 기본 규칙인 주요 규칙을 반영하는데, 레위기 17장 11

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피는 속죄를 위해 주어집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격언을 10장 초반에 곧 언급할 확인과 함께 제시합니다. 즉,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 속죄를 위한 피의 필요성, 그리고 동물의 피가 죄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은 사실상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인간 희생의 필요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희생은 예수의 죽음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이미 8장 3절에서 암시한 것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을 바치기 위해 세워졌으므로 이 대제사장도 바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제물의 본질은 이어지는 섹션에서 저자의 논의에서 훨씬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의 승천의 우주적, 의식적 의미에 대해 언급하면서 설교의 9장을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늘의 실체의 그림자가 이러한 희생을 통해 깨끗이 씻겨져야 했지만, 하늘의 실체 자체가 이러한 희생보다 더 나은 희생으로 깨끗해져야 했다는 것을 읽습니다.

설교자는 속죄일 의식과 언약 제정 예식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던 피로 지상의 성막을 정화할 필요성을 받아들인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성소에서 더러움이 쌓이는 개념,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람들의 죄를 도발적으로 상기시키는 것, 그리고 동일한 것을 의식적으로 정화할 필요성에 대해 마주친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람들의 죄를 상기시키는 이러한 쌓임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러움과 그 원인을 불태우기 위해 터져나오거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염된 성소에서 물러나시어 사람들에게서 보호와 공급을 거두시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9장 23절에서 더 작은 것과 더 큰 것의 대조를 구성하는데, 이는 9장 13절과 14절의 더 작은 것과 더 큰 것의 주장을 상기시킨다. 새로운 의식이 죄인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더 효과적인 피로 양심을 깨끗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영역에 있는 더 나은 성소도

더 나은 피로 깨끗이 해야 한다. 하늘의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모욕을 영원히 상기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예수께서 하늘의 성소를 정화하신 것은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명시된,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적으로 시행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승천에 대한 해석적 틀을 제공하는데, 이는 예수 이야기의 한 측면으로, 기독교 신학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만큼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자가 계속해서 말하듯이, 그리스도는 손으로 만든 성소, 즉 진짜 물건의 대용물(antitypes)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셨으며,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자의 미묘한 용어 전환을 관찰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은 유형이나 원형을 제공하고, 예수와 그의 사역은 반형을 제공합니다. 유형은 예시하고, 반형은 그 패턴을 따르고 완성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장막을 원형이라고 부름으로써 저자는 듣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성전이 지상의 사본이 지어지기 전에, 실제로 창조 자체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8장 5절에서 들었듯이요. 하늘의 숭배와 지상의 의례 사이의 관계는 이 지점에서 역전됩니다. 사실 지상의 의례는 하늘의 숭배의 패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모조품에 불과하지만, 예수께서는 승천하심으로써 실제의 것, 즉 하나님의 거처인 참된 장소로 들어가셨고, 따라서 중재가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이거나 더 효과적인 장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죄의 기억을 제거하셨고, 그 기억은 인간이 신성에 접근하는 것을 더럽히고 제한했습니다. 예수께서도 같은 행위를 하셔서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속죄와 언약 사이의 연결은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의해 여기서 용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과 인류 모두에게 이 새 언약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탈출기 24장과 여기에서 언약의 중보자가 적절하게 수행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승천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대조는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에서 이어지며,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과 레위 대제사장의 매년 반복되는 희생의 대조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늘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매년 다른 사람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그분은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시대의 완성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없애셨습니다. 설교자는 이미 9장 7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희생이 속죄일의 연례 의식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룬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대조 지점으로 돌아가서 여기와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다음 문단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 희생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지상의 대제사장과 예수가 자신을 희생한 것 사이의 구별은 예수의 희생의 더 큰 질뿐만 아니라 예수가 중재의 이 임무에 더 많이 투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자신을 쏟아서 그의 의뢰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저자의 회중의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감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충실함에 대한 억제력, 그렇게 투자하고 자기 희생적인 중재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종말론적 차원이 숭배적 논쟁에 들어가며, 10장 13절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의 제사장적 행위는 역사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끝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는 시대의 완성에 나타났다. 이것은 설교자가 이 설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청중에게 주고자 하는 인상을 강화한다. 그들은 그들의 상속, 그들의 안식, 흔들리지 않는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고, 적대적인 자들을 복종시킬 때가 문 앞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잠깐 동안만 자신의 헌신을 굳게 붙잡으면 되는데, 저자가 10장 36절에서 39절에서 명확히 말했듯이요. 저자는 이 종말론적 차원을 발전시킨 다음, 컬트 중심의 설명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설명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자 한 번 자신을 바치셨고, 죄와 무관하게 두 번째로 나타나서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에 대한 격언은 저자가 그룹을 떠나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경고를 강화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버린 아들의 하나님에 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후 심판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맞이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적대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소한 위기에 대한 우려로 시선을 돌리는 대신 듣는 사람의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값비싼 은혜의 행위를 받고 충성심과 감사로 응답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 소테리아, 구원의 선물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저자가 구원을 미래의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 6~8절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여 신자의 과거에 있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저자가 다루는 목회적 필요, 즉 끝까지 지속될 미래 지향적 태도를 자극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주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미래적

차원으로 이끌면 잘 충족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함께 더 완전한 구원 과정을 구성하는 광범위한 경험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하고, 새로운 삶으로 걷고, 이 악한 시대를 끝낼 대격변에서 구원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 더 큰 이해를 어떤 한 측면으로 축소하면 성경적 구원 개념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집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을 과거로 되돌려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사와 경건한 순종의 응답을 살아가는 충실한 사람들을 위해 행하실 일을 갈망하게 만듭니다.